

마가복음 8:1-21은 구조상 앞 뒤에 위치한 이야기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천 명을 먹이는 일(8:1-10)은 바다를 건너고 풍랑을 잠재우는 두 번째 사이클(6:45-8:10)을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변론과 시험으로 발단된 신학적 논쟁은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클로즈업 시키고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빠른 이야기 진행을 잠시 멈추고 그 동안 예수의 행적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앞에서 예수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포함한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구절—“그 무렵에”(in those days)—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는 여전히 이방인 전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8:1). 또 다시 모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멀리서 온 이들”(8:3)은 아마도 이들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유대지역(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행했던 축제처럼(6:30-44) 이방지역(갈릴리 바다 동편)에서도 축제를 갖는다(8:1-10). 이것이 사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다. 이후 잠시 갈릴리 바다 서편으로 건너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 다시 이방지역 뱃새대로 향하는 배 안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또 한 차례 가르침의 기회를 갖는다.

사건의 발단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의 경고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염려함으로 시작된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그들의 신학과 이데올로기—을 경계한 것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 이 질문과 함께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 동안의 행적을 상기시킨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스스로 숨은 가르침을 깨닫기를 바랐다. 비록 이 질문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한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직도”라는 말을 통해 예수—그리고 마가 공동체—는 실낱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고, 8:22-10:52은 이에 대한 사려 깊은 변론이다.

떡의 숫자와 의미

첫 번째 군중을 먹이는 사건에 예수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었었는데(6:38), 똑같은 질문이 두 번째 군중을 먹이는 사건에도 나온다(8:5). 이번에도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를 밝히려 노력할 이유가 없다. 만일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독자의 해석학적 권리며 또한 의무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 두 바구니를 거두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를 남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떡 다섯이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다면, 떡 일곱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와 민족을 말한다고 본다(신 7:1; 수 3:10; 21:11; 행 13:19). 떡의 남은 숫자 열 둘과 일곱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각각 이스라엘 열 두 부족과 이방 국가(민족) 일곱을 상징한다. 초기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열 두 사도에 비견되는 일곱 집사를 헬라 이방인 교회에 세움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행 6:1-6). 다섯과 천의 배합으로 살펴 본 오천 명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상징한 것처럼, 사천 명은 넷과 천의 배합으로 볼 수 있다. 넷은 사망, 곧 온 세상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땅 끝 사망”—four corners of the earth—을 뜻한다(사 11:12; 겔 7:2; 계 7:1; 20:8). 이는 당시 우주관에 따른 것으로 땅뿐 아니라 하늘도 사망이 있는 것으로 본다(렘 49:36). 이처럼 사망을 뜻하는 숫자 넷과 무한정 많은 양을 뜻하는 천이 합하여 사천 명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숫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유한 말이 된다.

여기에 쓰인 열 두 바구니와 일곱 광주리 표현 또한 눈 여겨 볼만 하다. 영어성경에는 둘 다 바스켓(basket)으로 번역되나, 헬라어 본문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크기에 있어 바구니(κόφινος)는 광주리(σπυρίς) 보다 작은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약성서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만 바구니(κόφινος)가 쓰였는데, 구약에는 기드온이 하느님의 사자에게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 드린다(삿 6:19). 광주리(σπυρίς)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다메섹 성에서 달아 내려 보낼 때 썼으니(행 9:25),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큼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부족 단위가 이방 국가와 민족 단위 보다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열 두 바구니”와 “일곱 광주리”는 적합한 단어 선택으로 보인다. 우리말에도 “입이 광주리만 해도 말 못한다”는 은유적 표현이 있는데, 광주리가 바구니보다는 크기 때문에 “입이 바구니만 하다”는 말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기에 쓰이지 않는다.

표적과 바리새인의 누룩

예수가 달마누다 지방으로 되돌아 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난다. 달마누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지만 바다 서편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의 행적이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부터 왔음을 암시한다. 마태복음은 마가단 지경으로 이해하고(15:39), 일부 사본에서는 이를 막달라로 표기한다. 문학적 전개라는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존재가 이방지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를 가리켜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해석의 틀을 짠다. 갈릴리 유대인 지역에서 마지막 대면이다. 이후 예수는 이방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에 기적, 능력, 권능을 뜻하는 말로 두나미스(δύναμις, power)가 많이 쓰인다(5:30; 6:2, 5, 14; 9:1, 39; 12:24; 13:25, 26; 14:62). 여기서 바리새인은 표적(σημείον, sign)을 구하는데, 이들은 예수가 행한 권능을 무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성서적 전통에서 표적을 요구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삿 6:36-40; 왕하 20:8-11), 여기서는 또 다른 표적을 통해서 믿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기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권능/기적 자체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기 위함이란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8:11; cf. 3:22-30). 예수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려 함은 4 장 썬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외부인들에게는 비유로 주어지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13 장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표적(징조)을 물었을 때는 예수는 표적(징조)을 말해준다. “표적”(σημείον, sign)이란 말은 신호등처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표적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전하는 뜻에 초점을 둔다. 표적 없이도 알 수 있다면, 최상의 깨달음이다. 대체로 많은 일들을 그냥 직감으로 안다. 내적 능력의 발동이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할 때는 표적과 징조를 주어도 모른다. 또 표적이라고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다. 거짓 표적(징조)도 있기 때문이다(13:22; cf. 신 13:1-3).

예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문자적으로 이해—혹은 오해—하고 떡을 갖고 오지 않음으로 불안해 한다. 예수는 은유적으로 빗대어 한 말이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미 예수가 비유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4:34), 여기서도 문자를 넘어 그 이면에 자리한 뜻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빵과 누룩은 모두 은유적 표현으로, 빵이 말씀이라면 누룩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적 틀이고 가르침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꿰는 일, 일관성 있는 이해가 신학이라면, 여기서는 누룩에 해당한다. 문제는 어떤 누룩인가를 말한다. 빵을 부풀리듯 생명을 일으키는 누룩인가 혹은 위선과 독재로 가득 차 해악을 끼치는 누룩인가(눅 12:1).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의미한 것을 깨닫는다(마 16:12).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지배체제를 대표하는 말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여 함께 나오는 곳이 두 군데 더 나오는데, 두 경우 모두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모의한다(3:6; 12:13). 예수와 지배체제와의 대립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떡이 한 개 밖에 없음을 걱정한 이유는 세상의 눈(이데올로기, 가치관, 신학)으로 현실을 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많은 양의 빵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고, 세상의 경제 원리, 지배체제의 신학으로 현실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면, 최소한 여기서 제자들은 떡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예수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떡이 하나 밖에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로 충분하다는 뜻도 된다. 말씀(떡)은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뿐이다. 마가복음에 떡이라는 단어가 총 21 번 쓰이는데 그 중 18 번이 이 논쟁과 관련된 이야기에 사용된다. 후에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이 내 몸이라(14:22) 말하면서 예수는 자신을 떡에 비유한다. 마가복음에서 떡은 예수의 말씀과 신학을 의미한다. 떡을 먹고 공유함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신학을 공유함이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마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으로 보았다(6:52; 8:17). 두 번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4:40), 떡에 관하여 깨닫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두 번째 바다를 건너는 일과 관련해 우리 말 성경번역처럼 떡 때시던 일, 떡의 기적이 초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떡의 의미—“떡에 관하여”(ἐπι τοῖς ἄρτοις, about the loaves)—를 깨닫지 못함이 숙제다. 깨닫지 못함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과 같다(8:18). 마음—곧 생각, 인지 능력—이 둔하여짐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등장한다(4:12). 외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외부인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의 능력(가르침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이 심판을 위한 목적구로 쓰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의문문 형식으로 쓰였다. 한 번 스스로 되새겨보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헬라어에서 부정의문문은 종종 그 대답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 긍정적 대답을 기대할 때는 불변화사(particle) 오(οὐ)를 쓰고, 부정적 대답을 기대할 때는 메이(μή)를 쓴다. 여기서는 긍정적 대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너희가 보고 또 듣지 않느냐”(You do see and do hear, don't you?)는 의미다. 또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 속에 “아직도”(yet)는 시간상으로 때가 되지 않았음을 뜻하고, 이후 제자들의 영적인 눈 뜸—깨달음—이 기대된다. 예수는 앞서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데(7:31), 듣고 보는 것은 깨달음의 전초 작업이다.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이 능력은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제자들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고치는 이야기가 두 번의 소경이 눈뜨는 이야기(8:22-26; 10:46-55)를 통해 나온다.

예수의 가르침과 크리스천 정체성

떡과 말씀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 가르침과 깨달음은 마가복음 신학의 근본이다. 예수가 처음 회당에서 능력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외친다. 새로운 가르침이다(1:27). 누구나 기적, 표적, 능력을 말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가르침이란 단어를 선보였다. 예수의 행적—능력, 권능, 기적—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드러난 정체성 선언이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경계선 없애기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배체제를 위한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리로 서로 소통하는 사회가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계급 타파를 통해,

외적으로는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 성별, 지, 모든 면에서 경계선 밖에 있는 상징적 존재다.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예수를 보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왕)에 예수를 놓고, 그를 통해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맘몬—를 추구한다. 제자들이 꿈꿨던 자리 다툼이다(9:33-35; 10:35-45). 예수는 오히려 그런 지배체제에 맞서 투쟁하고 하느님 나라를 전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를 이해한 결과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데(14:50), 이 모두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신학을 한다 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서두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는 고백은 마가복음 공동체의 정체성 선언이다. 당시의 언어로 쓰였지만, 그 의미는 어떤 신학의 틀(누룩)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천양지차다. 어떻게 사는가? 정체성에 따라 산다.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이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책망 속에 아직(yet)이란 표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담고 있다. 외부인들을 예수는 떠났지만, 제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준다(4:34). 아직 깨닫지 못함은 결국 깨닫게 될 것을 암시한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4:22). 곧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깨닫지 못한 것 또한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 있다.

생각해 보기

1. 우리는 예수 (혹은 하느님)에게서 무엇(표적, sign)을 구하는가?
2. 지금까지 예수의 행적을 정리해 보라. 내가 이해한 것은?